우리는 모두 성공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열정으로 성공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을 하나둘 세우고 이를 성취하며 이러한 반복적 그릿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성공의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저자는 그릿은 성공의 필요조건으로 재능과 성공 그리고 그릿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오직 재능만 있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성취 = 재능 X 능력²’과 이를 동반한 ‘꾸준함’을 모두 포함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단계를 하나 둘 씩 성취해가는 것이 그릿이고 그것이 곧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모두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성공의 척도는 그 잠재력을 발견하고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지에 영향이 미친다.

나는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나만의 그릿을 만들어 실천해가려고 했다. 먼저 나의 목표 즉, 나의 궁극적인 목표인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직업탐색을 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 잠재력은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라 끝내 우직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하지만,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학교를 가야한다고 생각했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좋은 학업성적이 필요했다. 그래서 야간자율학습 보충반 수업을 신청하여 매일 아침 6시 40분에 등교, 9시 30분 하교를 약 2년 동안 반복하였다. 사실 나는 그릿에 대한 열정은 컸지만, 실천은 미미했었다. 내 미미한 실천을 깨달은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성적표였다. 나의 성적표는 30여 명 중 중간에 위치하였는데 중간은 사실 개의치 않았다. 항상 중간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를 자극한 것은 ‘소수점’이였다. 소수점 하나로 등수와 점수가 갈리는 것이 내 대학 입시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여간 억울하지 않을 수 없던 것 이였다. 나는 가장 먼저 내가 가장 흥미 있는 과목을 살폈고 일본어, 국어, 전산회계를 고르고 내가 해야 하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을 위주로 공부했다. 나는 항상 되내었다. 이후부터는 꼭 반에서 10등 이내에 들을 것이라고. 결국 나는 그릿을 통해 목표를 이루었다. 1학년 기말고사 반 10등에서 3학년 기말고사 전교 2등을 이루었다. (관광과에서 2등이지만 나는 무척 기뻤다.) 1학년 중간고사 이후, 단 한 번도 반에서 10등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었다. 학우들은 그런 나를 보며 ‘원래 공부를 잘 하는 애’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나는 전혀 공부를 잘했던 것이 아니다. ‘계기’와 ‘목표’가 있었고 그에 부합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던 것 뿐 이다. 하지만, 내 궁극적인 목표인 대학에는 떨어지게 되었다. 나는 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그릿이 부족했던 것일까? 맞다. 나는 그릿이 부족했다. 그저 작은 목표를 이뤄서 신이 나버려서 나의 궁극적인 목표위해 꾸준히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동안의 수능 공부는 그저 나의 합리화였다. 결국 나는 모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었고 현재진행형이다.

솔직하게 나는 자기계발서는 잘 읽지 않는다. 왜냐하면, 와 닿지 않기도 하고 같은 말이 반복되어 지루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그릿은 꽤 신선하였다. 책 앞부분에 그릿지수 알아보기를 통해 나의 열정과 실천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본 것과 그동안의 내 모든 생활습관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또한, 구체적인 목표설정방법을 알려줘 보는 독자가 조금 더 쉽게 성공과 성취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좋았다. 아쉬운 점은 잘 알려진 우수한 대학교의 학생들, 연구진들, 성공한 사람들만의 인터뷰를 통해 그릿을 나타낸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그릿을 통해 자기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하고 있다. 너무 지식인에 대해서만 치우치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그릿을 통해 성공이라는 목표에 이룬 이야기도 함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